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며, 특집호를 통해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한시적으로 수시 발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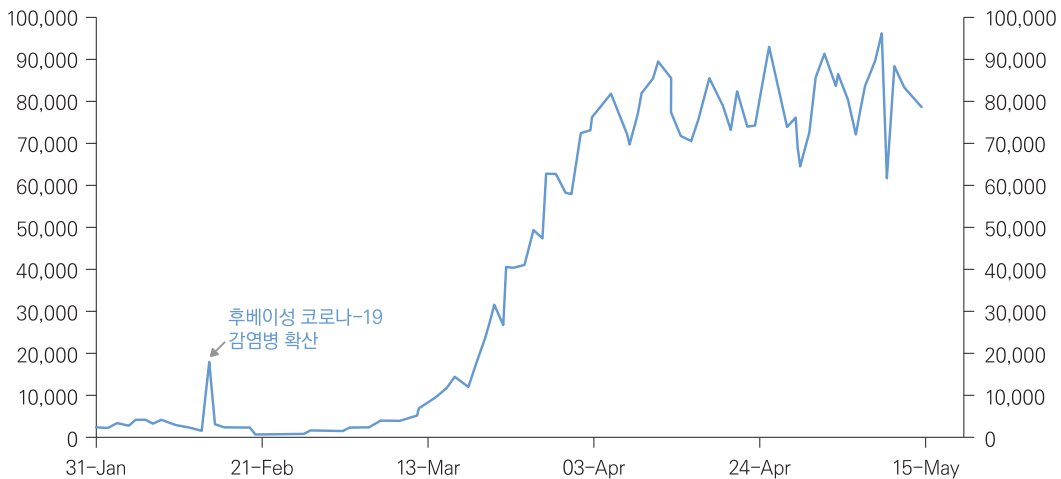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 지방재정정책 대응전략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전망

####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 우리 시간으로 5월 18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80만 2천여명이며 사망자는 31만 7천명을 기록하였음
- 유로존 국가 상당수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확산 추세임

■ 〈그림-1〉 코로나19 확진자 수 ■



자료 : Capital economics,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2020.5.18. 기준

#### 2020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 IMF는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반영한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함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worst recession)'를 겪을 것이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을 것이라 평가하였음
  - 당초 올해 1월에는 전세계 경제가 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3.0% 역성장으로 수정하였음
  -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제위기 양상이 심각하여 미국 -5.9%, 중국 1.2%, 일본 -5.2%로 전망함
- 런던에 본부를 둔 경제전망기관 Capital Economics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전망 수치를 수정하고 있으며, 5월에 발표한 수치는 3월 전망치 보다 비관적임
  -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3월의 -1.0%에서 5월에는 -3.0%로 예측하였음
  - 핵심 교역국인 일본,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음
  - 3/4분기부터 다수 선진국들이 "v자형 경기회복"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표-1>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경제 전망 ■

	Capital Economics (2020년 5월 18일)					IMF (2020년 4월 14일)				2020년 1분기 발표치
	2020년					2021년 전망	2020년		2021년 전망	
	당초 전망 (1월)	수정 전망 (3월 26일)	수정 전망 (5월 18일)	1분기 전망	2분기 전망		당초 전망 (1월)	수정 전망 (4월 14일)		
한국	2.0	-1.0	-3.0	-0.5	-8.0	6.0	2.4	-1.2	3.4	-1.4
전세계	3.0	-3.1	-4.0	-5.5	-6.5	8.7	2.9	-3.0	5.8	n.a.
미국	2.3	-5.5	-5.5	-1.2	-12.0	7.0	2.0	-5.9	4.7	-4.8
일본	0.7	-4.0	-7.0	-0.5	-12.0	5.0	0.7	-5.2	3.0	-3.4
중국	6.1	-3.0	-5.0	-19.5	13.5	15.0	6.0	1.2	9.2	-6.8
유로존	1.2	-6.0	-12.0	-3.8	-20.0	10.0	1.3	-7.5	4.7	n.a.
독일	0.6	-8.5	-8.0	-3.0	-11.0	4.5	1.3	-7.5	4.7	n.a.
프랑스	1.3	-8.5	-10.0	-3.4	-19.0	7.5	0.6	-7.0	5.2	-5.8
이탈리아	0.2	-9.0	-18.0	-7.0	-30.0	15.0	1.3	-7.2	4.5	-4.7

주 : 1) 2020년 1/4분기 발표치는 각국의 중앙은행 발표 수치임

2) 1월 전망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한 수치이며, 수정 전망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반영하여 다시 전망한 수치임

- 한국은행은 4월 23일 1/4분기 GDP 실질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였다고 잠정 집계하였음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됨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나 건설투자 등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에서 -1.8%, 서비스업이 -2.0%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별로는 음식숙박과 오락문화가 -6.4%의 역성장을 기록하여 경제위기 진양지로 밝혀졌음

■ <표-2-1>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내역 ■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국 내 총 생 산 ( G D P )	1 -2.8	0.6 -2.9	0.5 -2.1	0.9 -2.9	-0.4 -1.7	1 -2	0.4 -2	1.3 -2.3	-1.4	-1.3
민 간 소 비	0.7	0.5	0.4	0.8	0.1	0.7	0.2	0.9	-6.4	(-4.7)
정 부 소 비	1.9	0.6	1.6	2.8	0.4	2.2	1.4	2.5	0.9	-7.1
건 설 투 자	0.9	-2.5	-6	1.8	-0.8	1.4	-6	7	1.3	-3.4
설 비 투 자	4.3	-8.4	-4	3.2	-9.1	3.2	0.6	3.3	0.2	-7.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7	0	1.2	0.3	1.3	-0.1	1	0.4	1.1	-2.3
재 고 증 감	0	0.3	-0.8	0.6	0.3	0.1	-0.5	-0.7	0.6	(-0.4)
수 출	3.5	0.7	4	-1.4	-3.2	2	4.6	0.5	-2	-4.9
수 입	4.3	-2.3	-1.1	1.6	-3.4	2.9	1.2	0.6	-4.1	-0.5

■ <표-2-2>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내역 ■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3.2	-2.6	-3.5	2.8	4.7	-3.6	0.6	1.4	0.1
제조업	0.8	1.6	1.6	1.6	-3.3	1.1	2.4	1.6	-1.8
전기가스 수도사업	-1.8	4.5	-0.1	2.5	0.0	10.7	-13.6	4.2	5.7
건설업	1.1	-2.1	-5.0	0.8	-1.0	1.6	-4.9	5.6	0.3
서비스업	1.3	0.4	0.5	0.5	0.8	0.8	0.6	0.8	-2.0
-도소매 및 숙박음식	-0.7	0.7	1.4	1.2	-2.3	0.8	1.4	1.4	-6.5
-운수	-3.1	4.1	0.4	1.0	-3.4	1.9	0.7	0.2	-12.6
-금융 및 보험	3.4	1.7	0.1	-0.6	2.5	1.3	1.7	0.0	2.3
-의료보건	0.7	1.8	4.5	3.1	-0.9	2.1	3.8	1.9	-5.2
-문화 및 기타서비스	6.0	-3.4	-1.1	-0.3	3.9	-0.7	-2.3	0.1	-6.2

주 :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4.23)

## 코로나19와 지방재정 정책대응

### 지역경제 전망

- 2/4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섯다운에 의한 내수침체와 수출둔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4분기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경제회복 양상이 'U자형'을 보일지, 'V자형'으로 나타날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될 것인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대응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그리고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양상에 좌우될 것임
  - C-19 대응역량에 따라 경제위기 양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 신속히 회복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요 경제예측기관도 신중한 입장임
- 누적확진자 통계를 대상으로 4종류의 시계열기법(Levin, Lin & Chu의 t-test, Im, Pesaran & Shin의 W통계량, ADF검정 및 PP검정의 통계량)으로 단위근(unit root) 존재를 검증한 바, 5월 18일 현재 단위근이 존재하였음
  - 이것은 누적확진자 수치가 아직은 불안정한(nonstationary) 시계열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확산될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재확산은 "V자형 경제회복"이 아니라 "U자형 경기회복", 최악의 경우 "L자형 경기회복"에 봉착하여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발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충북지역을 사례로 경제전망을 실시할 결과, -1.3% 이상의 역성장이 예측되었음
  - GDP와 충북 GRDP는 Johansen 공적분검정 결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적분(co-integr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에 따라 Capital Economics의 3월 26일 전망치 -1.0% 경제성장률 가정하에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공적분 회귀식(FMOLS :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하였으며, 충북 GRDP는 -1.3% ~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경기침체 국면에서 충북 지역경제는 국가 전체보다 하강 속도 및 폭이 깊은 편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관측되고 있음

\* 경기순환 상, 충북 지역경제는 하강 국면에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경제 평균 이상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림-2> 국가 전체의 GDP와 충북 지역경제 GRDP 경기순환 비교 ■



### 충북지역 지방세 전망

- 충북지역의 지방세와 GRDP도 강한 공적분 관계를 맺고 있었음. 즉, 충북지역의 GRDP와 지방세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균형관계를 형성하였음
- GRDP 전망과 마찬가지로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VECM(1) 모델과 공적분 회귀식으로 지방세를 전망한 바, 충북 본청은 -10.1%, 시 지역은 -5.9%, 군 지역은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금액으로는 전망 모델에 따라 -1,352억원 ~ -1,746억원으로 예측되었음  
- 본청 -756억원 ~ -1,150억원, 시 지역 -493억원, 군 지역 -103억원 감소함
- 또한, 상대적으로 세원이 풍부한 지역(청주, 충주, 음성, 진천 등) 및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위축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방교부세의 총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국세에 대한 전망 작업도 시도한 바, 올해 내국세는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1조원 이상 줄어듦

###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 한국경제가 “V자형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야 할 시점임
- 내수시장 자극에 효과적인 재정사업 위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함  
- 올해 적기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은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변경함  
- 지역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함
- 전 영역에 걸쳐 Fast Track 제도를 확대 실시함  
-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민간보조, 투자사업과 관련된 투자심사 및 지방채심사 등의 내부절차를 신속히 처리  
- 지방의회 승인 절차도 의장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승인기간 단축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신속 행정처리를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절차(투자심사 예외사업 확대 포함)
-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대상 각종의 세제·금융·재정지원
- 이 밖에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대기업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유예 확대, 외국에서 U턴하는 국내기업을 겨냥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확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함
- 확장적 지방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채무 발행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재해에 해당하므로 민간지원금이나 경상사업 등에도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 검토
  - 자치단체별 발행한도액 상향 조정 등도 병행 추진

▶ 내용문의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3-769-9870, ckh@krila.re.kr)

▶ 지난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경제적 영향 산출 방안(박승규 연구위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mailto: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